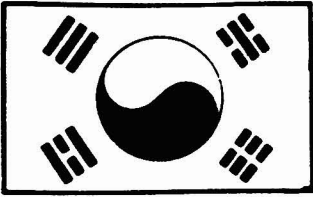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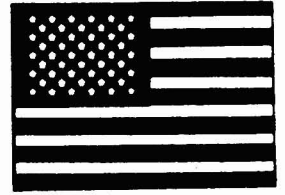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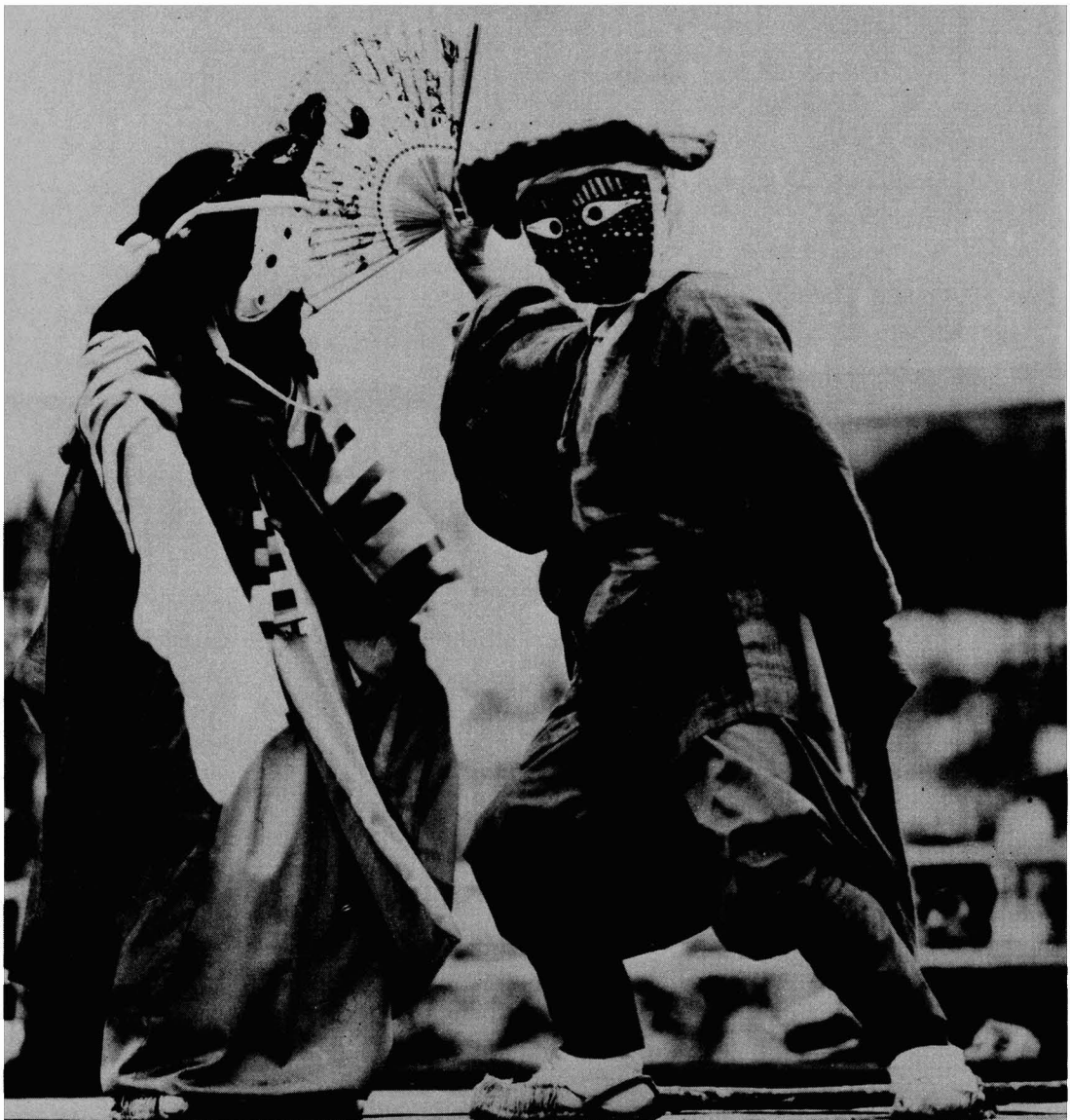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206) 362-4500
KWANGNAM YOON - Publisher
Soon Kwon Lee - Editor



한인회보

1987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오리엔탈 바베큐센터

Oriental B.B.Q. Center

★ Restaurant & Cocktail Lounge ★

자랑스런 한국식당

아늑한 분위기 · 푸짐한 밑반찬
한식 및 중화요리일체 · 불갈비
냉면 · 전골전문 · BBQ 일체

- 회의실 및 연회석 완비
- 넓은 자가 무료주차장
- 가족모임, 친목회식, 회갑연, 결혼 및 약혼 피로연, 기관접대연 환영
- 야외도시락 주문배수

771-3700

3828 196TH ST SW LYNNWOOD

RESTAURANT & COCKTAILS

OPEN 7 DAYS A WEEK 11:00~2:00 AM

대표 이종길

단체예약 : MRS. LEE

김용철 공인회계사

취급업무

- 개인 및 법인세무업무
- Computerized Accounting & Bookkeeping
- 각종 재무제표 작성
- 경영자문 및 세무상담
- Financial & Tax Planning
- 투자상담
- 회계감사

363-5730

778-6440 (집)



경 령

- Coopers & Lybrand, Audit & Tax dept 근무 (미국 Big 8 의 하나)
- SK Corp Consulting Accountant
- Univ of Washington MBA
- Univ of Washington Accounting BA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경기고등학교
- AICPA Membership, Wash Society of CPA's
- America Korea Trade Club Membership

Metropolitan Bldg Suite B

11065 5th NE Seattle, WA 98125

목 차

권두언(윤광남회장)

역대 이사임원 합동회의 및 신임 김홍수총영사 환영사.....	4
교포에게 드리는 인사말(김홍수 총영사).....	6
캠프 및 SAT, PSAT 프로그램안내	7
새 이민법이 교포에게 미치는 영향(이동훈 법률고문).....	8
사업체 매입시 착안 및 유의하상(윤상인 상공회장).....	12
생활인의 지혜(정인호박사).....	16
자동차 엔진오일은 왜 필요한가(이점태).....	18
보험에 관한 상식(류창명 홍보부장).....	20
종교칼럼 「살야할 의미」(김상구목사).....	21
교포 재정투자신탁에 관한 정보 II(최한준 청년부장).....	23
한인회 무료법률상담 안내.....	25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안내.....	28
한인회 소식.....	32
독자투고.....	37
한인회 재무보고.....	38

●한인회 사무국장 근무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화~토)

●한인봉사회 근무시간
오후2시30분~6시30분
(매주 금·토요일)

정인호박사(778-6984)

— 역대이사, 임원 합동간담회 및
김홍수 총영사 환영회 —

환 영 사



윤광남 회장

친애하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역대 이사 임·역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하신 신임 김홍수 총영사님 내외분!

오늘 우리는 시애틀 워싱턴주 역대 이사 임·역원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더불어 신임총영사님의 부임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시애틀은 교민 여러분의 너 나 할것없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한마음 한뜻 아래 일치 단결하여 다른 지역의 어느 한인사회 못지않게 발전되어 왔으며 성장되어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역대 한인회 이사·임원여러분과 교민들의 희생적이고 적극적이며 끊임없는 성원속에서 함께 땀흘리고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늘의 한인사회의 기반과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인들 한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는 이 없겠습니까 마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한인들속에서 함께 뛰며 맥박을 같이하며 운명을 함께 나누는 역사적 역군들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곳 이민생활이 바쁘고 피곤한 생활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저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한국인의 긍지와 저력을 나타내며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은 마치 일찌기 아메리카대륙에 정착하여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희생적 댓가를 치루었던 또 하나의 필그림이라고도 하는 퓨리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저마다의 생업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공동 운명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넓디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 한국인의 숨결을 꽃피우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창조해 나가는 또 하나의 퓨리탄인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전체 교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에게는 자라나고 있는 2세대 3세대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언어와 습관이 다른 이땅에서 자라가고 있지만 저들은 역시 한국인입니다. 저들에게는 한국인의 굳은 의지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사명도 다해야 할것입니다.

이일을 위한 한인사회의 급선무의 한과제는 먼저 명실상부한 한인 커뮤니티의 집합체를 이루는 회관건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한인회관 건립의 중요성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일을 위하여 바로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선배님들께서 동분서주하시며 터를 닦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일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인사회의 전체의 바람이요 또한 기대이상의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미 3만7천여불의 기금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이 회관이 건립되면 미국사회속에 한인 커뮤니티의 저력을 과시하는 힘과 한인들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며 보다 나아가 주류사회와 의젓하게 대화할 수 있는 외모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며 적어도 성년 20년의 우리 한인회의 자립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아집니다. 이런 한인회관이 건립되면 우리의 말과 글과 민족의 전통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심어줄 문화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초기 이민자들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정보센터가 될수 있으며 그밖의 가정문제, 정신문제등으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불우교포들을 따뜻히 감싸줄 수 있는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외감속에 번민하는 노인들의 따뜻한 대화의 장소로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람직이 성년 20년의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의 자립적인 면모를 가져야 할때입니다. 그래서 교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맙고 반가운 일은 때를 같이하여 신임 김홍수 총영사님의 부임과 함께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더욱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총영사님은 일찌기 미국의 여러곳에서 공관업무를 보아오셨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부임시절에는 우리의 기억속에 너무나 생생한 이철수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배후의 숨은 노력을 하셨던 공로자로서 교민들은 물론 더 나아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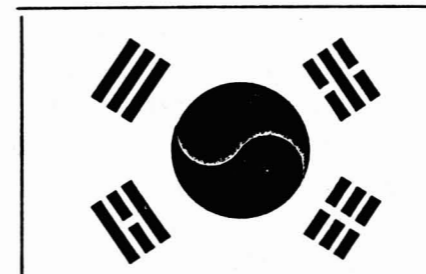
국인 전체의 단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이런분을 우리지역에 모시게 된것은 대단한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임기가 더욱 지역 교민사회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지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시어 교민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의 소임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곳 교포사회와 본국정부와의 가교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리하여 한인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호응과 숨결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있는 일꾼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다짐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늘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의 해답을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위해 노심초사 고심해 오셨던 공동의 과제였기에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일이 바로 성년 20년의 한인회의 성숙도를 짐작하는 일이며 이제는 그 무엇인가 이루어 놓아야 할 사명인것입니다.

어느나라 속담에 “기회는 한번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수 없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본 한인회 역대이사 임원, 그리고 신임 김홍수 총영사님 내외분께 감사와 더불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적인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빌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교포에게 드리는 인사말



김홍수 총영사

이 지역에 사시는 교포 여러분께 금번 한인회 보를 통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애틀 교포 여러분께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미국사회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일상생활을 통해 미국 사회에 한국을 심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임 안세훈 총영사로부터 일찍부터 듣고 왔습니다.

신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같이 훌륭하게 미국 사회에서 발전하고 계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애틀 총영사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다 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특히 시애틀은 본인이 10여년전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그당시 인정받고 훈훈한 교민사회였다는 기억이 새로와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본인이 평소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사관은 한인교포사회 안에 있으며, 항상 교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릴 수 있는 마치 "친정"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민들이 고향집을 찾는 기분으로 총영사관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쇄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공관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교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기탄없이 서로 상의하고 제반편의를 보아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격의없는 충고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신의와 성실로 스스로 노력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곧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는 조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외로운 이역 생활에서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조국의 발전을 염려해 주시고 우리 교민들이 하나같이 뭉치고 단결하여 언제나 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되겠습니다.

미 서북미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같은 환태평양권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통상면에서의 교류가 날로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부대표로서 또한 교민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교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미 서북미 지역 6만여 명의 교포사회의 뜻을 잘 파악하여 교민 여러분들 여망의 1/100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신전력 할 각오이오니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있기를 기원하면서 신임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SAT. PSAT 강좌안내

SAT Summer Class - 1987

The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s organizing SAT class during summer vacation for college bound students.

The 5 week program will emphasize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and English usage and Math.

The class begins on July 13th thru July 31st 12, daily 9 a.m. to 12 a.m. at Broadview School, 12515 Greenwood Ave N. Seattle.

We are lucky to have Ms. Robby Walker and Mrs AHAVA BLASKA as an instructor. Both of them taught SAT previously, is teaching at Chief Sealth high school and Bellevue high school.

청소년 하기캠프안내 (CAMP BERACHAH.)

Theme : KOREAN identity

Guest Lectures : JAE KUN YOO (Attorney)
SAM Lee (U.S Olympic gold medalist and U.S olympic Swimming Coach)
Kyung Won Lee (Union Newspaper Reporter)
Mr IK Chang Kim, MD
Mrs Ik Chang Kim
Kehi Oh (KOREAN Language School President)

From July 6 To July 9th

Place : Camp Berachah
19830 S.E. 328th Re, Aubrun, WA 98002

Contact persons - 362-4500 (Office Hours Tuesday through Sat)
235-4377 (Young W. Choy)
745-6584 (Michael Yoon)
431-1648 (HAN JOON CHOI)

새 이민법이 교포에게

미치는 영향



이동훈 변호사
(한인회 법률 고문)

1986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이 소위 "secure our borders," 라는 명목하에 서명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이 이민법 개정 및 규제안은 조건에 들어 맞는 혜택 대상들에겐 더 할 수 없는 흥분을 주는 반면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한 모순과 절충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불만과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첫째로 가장 광범위한 부분은 불법체류자 사면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1982년 1월 이후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이에게는 입국 절차의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 거주 자격이 주어지고 정해진 수속절차에 따라 영주권이 주어진다. 영주권 부여 여부에 대한 자격 심사는 재정보증과 과거 범법여부, 그리고 임시 거주 18개월 후의 영어와 역사 시험으로 구성된다. 1회 이상의 중범이나 3회 이상의 경범죄(취중운전도 해당됨)가 있을 땐 탈락 대상이 된다. 또한 새 이민법은 법적 지위 부여의 투수 대상으로 1985년 4월 30일 부터 1986년 5월 1일 사이에 특정 농장에서 90일 이상 일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이는 임시 거주권을 받고 1년 후 영어 시험 없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덧붙여 주목할 사항은 불법 입국 일자가 차이 남으로써 가족들 중 사면 대상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가장은 1981년에, 부인과 아이들은 1983년에 각각 불법 입국을 했다면 부인과 18세 이상의 자녀는 사면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불법 체류자의 고용에 대한 고용주 처벌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고용처벌에 대한 규제 조항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 체류자의 노동을 금지하면서도 이런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선 이런 모순으로 지금까지 가능해 왔던 불법 체류자의 노동을 막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처벌을 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새로 고용할 고용인에 대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기타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땐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인이 일단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이상 위조서류에 따라 행한 고용에는 책임이 없다. 원래 이 개정안의 초안에는 3명 미만의 고용인을 둔 고용주에 대한 소위 "Beverly Hill exemption"이란 웃지 못할 면제 조항이 있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정부나 정원사를 고용하고 있는 부자 동네 사람들의 입김을 대변하는 조항이었으나 결국은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새 이민법은 고용주들이 처벌을 염려하여 합법적인 이민자의 서류를 의심하고 고용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인 이상의 고용인을 둔 고용주를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셋째로 새 이민법은 사기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획득을 막기 위해 2년간의 시험기간을 설정

해 놓았다. 즉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후 2년의 임시 거주기간을 거쳐 이민국 관리 앞에서 면접을 해야만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만약 2년내에 이혼을 하거나 결혼 무효 신고를 할 때, 2차 면접에 가지 않았을 경우는 추방될 여지가 있다. 본인은 2순위(영주권과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려는 분에게 약 2년을 입국 전에 기다리라고 권하고 싶다. 미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보통 20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보면 비자를 받은 즉시 입국시에는 그 날부터 또 2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입국 비자를 받고 4개월만 더 기다렸다 미국에 입국할 경우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비자는 보통 4개월간 유효하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 하나의 규제 조항은 추방에 임하여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함으로써 추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 진행 과정 도중 결혼한 사람은 일단 출국을 한 후 2년 후에야 다시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로 인한 부부간의 별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재고를 하고 있다. 또한 덧붙여서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이혼 후 재혼을 할 시 새로운 배우

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사기 결혼에 의한 영주권 획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아무 하자도 없는 결혼 상대자들에게엔 여간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짐고 넘어 갈 조항이 있다면 미국 체류 기간중 영주권을 위한 법적 신분의 수정 금지 조항이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학교를 그만 두고 비자 타입을 바꿔서 거주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조항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한 변경사항 외에도 이 짧은 글로는 다 내포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법이 그러하듯이 결국은 이 새 이민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분들도 다수라 생각된다.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특별한 조건하에서의 재고가 가능할 경우가 허다할 것이므로 변호사나 이민상담소의 조언을 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 이 동훈 -
attorney at law

장 여 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 성지관광
- 국내외 항공권 판매 서비스
- 여권갱신업무 취급
- 각종 비자연장 ○ 이민·시민권
- 친지, 상용, 유학, 호적등본, 재정보증서

* 공항 자동차업무
(pick up service)

시애틀지역내 : \$20.00
시애틀지역외 : \$30.00

523-7057 ○ IATA(국제항공운수협회)공인대리점

527-2245 ○ ATC(미국항공운수협회)공인대리점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이창희선생 기념 장학회」에 관한 보고서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희선생 기념 장학회(CHANG HEI LEE MEMORIAL SCHOLARSHIP FUND)가 발족한지 이제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선생 장학회는 1979년에 이선생께서 서거하셨을 때 선생의 생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창립된 것입니다. 이선생 유족에게 보내온 부의금 약 \$ 4500를 고인의 미망인 김간난여사께서 장학회 설립을 위해 기탁하여 오므로서 장학회 기본금의 씨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장학회는 창립 이래 모두 34명의 장학생을 선출하여 도합 \$ 13,600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우리 장학회의 목적은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과 우리 교민 사회의 상호협조정신을 기르자는 데 있습니다.

고 이창희선생은 1920년대에 미국에 유학오셨고 고학생으로 공부하던 중에 1930년대의 미국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배고픔은 물론 인종차별도 당하는 어려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이선생께서는 생전에 항상 교포의 곤경을 잘 살펴보고 남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학회의 창립위원들은 이러한 숭고한 이선생의 정신을 우리교민사회에 깊이 뿌리 박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장학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장학회가 지난 7년간 이룬 업적은 양적으로 그리 거대한 성과라고 말하지 못하겠으나 질적으로 볼 때 이창희선생 기념 장학사업은 우리교민사회운동의 커다란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장학회는 기초공작의 단계를 넘어서 명실공히 명성있는 장학회로 발전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명예의 이창희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을 나열해 보면, 조희경, 손세간, 김정희, 김진화, 이현근, 김광식, 김위철, 장인혁, 안경희, 정성숙, 최성낙, 서명석, 권영채, 유경학, 천창환, 김상주, 이승삼, 김성해, 이경희, 이선혜, 유청

을, 임장순, 박영태, 김정현, 원윤경, 오근자, 지성권, 최우나, 권병우, 박영태, 김옥희, 이국철, 윤인희, 정연창들입니다. 이들 장학생은 최하 \$ 250 부터 최고 \$ 500 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장학회 창립 이래 장학기금은 뜻 있는 교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고 모금만찬회(2회), 추모회, 영화회 등을 통하여 모금하였습니다. 우리 장학회는 워싱턴주법에 의거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세무청(IRS)의 감세 혜택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립 이래 1986년까지 우리 장학회의 사무를 맡아 보시던 서두수(회장), 전계상(총무), 신호범(재무)제씨가 퇴진하게 되고, 1987년부터는 한만섭(회장), 오계희(총무), 이선복(재무)제씨가 장학회 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천년대의 한인교포사회를 바라다 보는 우리 장학회는 앞으로 우리 한인교포 장학사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장학기금 확충운동도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이창희선생 기념장학회는 우리 교민사회에 꽃을 피우는 기관이 되고, 우리 교민사회의 즐거운 한 페이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장학회 아니 여러분의 장학회를 사랑육성해 주시고 또 우리 장학사업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적은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ANG HEI LEE MEMORIAL
SCHOLARSHIP FUND
P.O.BOX 27431
Seattle, WA 98125

전화 (206) 641-5739
마지막으로 여러 교포님들의 만복을 빕니다.

이창희선생기념장학회이사회 임원 일동 드림

1987년 3월

Office Of The Mayor
City of Seattle

Charles Royer, Mayor

March 23, 1987

Michael Yoon
Greenwood Station
P.O. Box 30065
Seattle, Washington 98103

Dear Mike:

Enjoyed seeing you at Ambassador Ahn's reception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as President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 heard that the new Consul General is a good golfer. We'll give him a chance to show his stroke at this summer's golf tournament on August 22.

Sincerely,


Charles Royer

시애틀제일감리교회

First methodist church

425 95Th St Seattle WA. 98155
(206) 367-2178

주일낮예배 오후 1시

이중언어설교(주일낮예배)

청년대학부교육상담

기독교인 가정상담

이 창 수 목사

사업체 매입시 착안 및 유의할 사항

재미 교포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 생활여건에 항상 관심이 따르는 사업체 매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금번호에 현 샌츄리부동산 대표이신 윤 상인씨의 글을 기고 해 본다.

〈 편집자주 〉

윤상인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

교포 이민 역사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되었고 이제는 상당수의 교포들이 자기 사업체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는 요즈음, 그 부푼 꿈이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과거 12년간의 BROKER 경험을 토대로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착안하고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간추려 봅니다.

우선 크게 선택에 있어서 착안하고 유의할 사항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을 나누어 적어봅니다.

1. 선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A. 위치 선정 (LOCATION)

- (1) 코너 위치 선정은 사업체의 승패를 가름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코너에 위치한 독립된 건물 (Free Stand Bldg.) 이 좋고 통계상 S/W 코너가 가장 Traffic이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2) Major Shopping Center Major tenant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중요하다. Retail Shop 같은 경우는 Food Market 같이 매일 고정 고객이 왕래하는 곳이 Hardware Store나 Drug Store처럼 부 정기적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곳 보다 낫다.
- (3) Strip Shopping Center 조그마한 Retail Shop이 몇개 있는 Neighbor flood 샵핑 센터인데 주위에 새

로운 경쟁의 Shop이 더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를 City Planning Dept.에 확인함이 좋다.

B. Lease & Rental factor

- (1) Shop의 임차 기간이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본인의 투자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다음 투자자가 그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면 충분하다. Rent (임차료)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EX. market : 4-5%, 세탁소 : 6-7%, 식당업 : 6-8% 정도) 적은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Rent는 고정 비용이 되니 건물주를 위한 투자가 되서는 않된다.
- (2) Net, Net, Net Lease 해당 Shop의 Lease가 Triple net lease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산세, 보험료, 일반 건물 관리 유지비를 건물주가 전부 부담하느냐 아니면 Tenant가 차지한 면적 비율로 내느냐는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분 (increasing amount)만 Tenant가 내는 경우도 있다. 경기 변동이 심해지면서 N.N.N Lease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 (3) Option Lease를 보면 Option이란 개념이 많

이 나온다. Option이란 임차인이 갖는 중요한 권리인데 일정기간 내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기간중 Lease 조건을 다 잘 이행 하였으면 정해진 기간내에 (보통 현존 Lease 만료전 60일 - 6개월전) 건물 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정해진 기간동안 더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거절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Option기간중에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Lease 계약서 끝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를 기준으로 하던지 arbitrator (중재인)을 선정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위에 말한 기간중에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일을 잊어 버리면 불리한 입장에서 Dealing을 해야 하며 아주 Lease를 잃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비싼 Rent를 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점 유의해야 된다.

C. Density (밀집도) 점검

아무리 기존 업체가 잘 되어도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자유 경제 질서 아래서는 얼마든지 같은 종류의 업체를 가까이 세울 수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업체 주위를 직접 조사하고 City Planning Dept.에 문의하여 어떤 곳이 개발될 것이며 개발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체가 들어 올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한다.

D. Future (전망)

기존 업체가 잘 되어도 주된 고객을 공급해 주는 업체나 주택단지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져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공장근처라면 혹 Close out 하는 회사들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 보아야 하며 현재는 부진한 업체이지만 운영자가 잘못하여 개선할 여지가 많고 문제점을 보완하면 크게 improve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적은 권리를 주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쓰러져 가는 업체를 살 경우 건물주나 Note Holder와 직접 절충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않

된다. (Rent를 낮추거나 Note Discount 받을 수 있다)

E. Vocational Aptitude (직성검토)

직성이 맞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먼저 주인이 잘 했다고 당연히 사업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고객 접대에 자신이 없으면 현지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서슴치 말 것이며 (간단 Star 고용) Business가 drop하기 시작하면 원인을 분석, 개선하고 빨리 서둘러 정리하는 것도 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F. Return on Investment (투자회수)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몇년에 회수할 수 있어야 Good Invest 나 하는 문제는 정명이 없는 듯 하다. 현행 이자율도 감안해야 하는데 경험으로 보아서 년 20%, 회수되면 5년후면 100% Return이 되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G. Working Capital (운영자금)

운영자금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인수하면 쉽게 도산하기 일쑤다. 경험으로 보아 Service 업체라면 2-3개월 정도의 고정 비용 (Example, 임금, Rent utility)를 Cover할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고 Inventory도 1개월 정도 매상액을 확보함이 좋다. Cash down 할 수 있는 돈만 가지고는 각종 Deposit (Example, Rent, Escrow fee, Utility 등)이 필요하고, 나아가 Sales tax도 내야하니 소요자금 산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H. Preferred Existing Business (가급적 기존 업체를)

요즈음처럼 권리가 비싸서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교포가 많은 것 같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기존업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는 일이 현명하다. 통계상으로 보아 새로 시작한 업체는 2-3번째 Owner가 성공한 경우가 많다. "내경우만은 예외"라는 자부심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많은 교포들이 새로 시작해서 손해 본 경우가 허다함을 상기시키고 싶다.

2. 계약상 주의해야 할 점

A. Contingency 와 Time Limit (조건부계약)

1
입

계약당시 Business Record 와 현존 Lease 계약서를 보고 확인, 만족할 것을 일정 기간내에 - 조건으로 함이 현명하다.

Ernest Money (계약금)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빠져나올 수가 있다.

B. TAX Consequence (TAX 상담)

사업체를 살때 전체금액 (Total Consideration)을 어떻게 할당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설 장비로 많이 할당하면 감가상각에 펍 도움이 되지만 우선 Sales Tax 를 현금으로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시설 장비뿐 아니라 Lease Hold Improvement 도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Allocate 함이 상례이다.

- (1) Trade name & Good will \$ _____
- (2) Lease Hold improvement & interest \$ _____
- (3) Covenant not to compete \$ _____
- (4) Fixture, Furniture & Equipment \$ _____

C. Security note 와 Existing note

(1) 담보증서 작성시 " Due on sale clause "가 가급적 없도록 해야하며 이런 구절이 있으면 이 다음에 팔기가 대단히 어렵다. " Due on sale "이란 이 다음에 해당 사업체를 팔때 Seller가 Carry 한 Loan Balance 를 전부 Pay off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Attorney 와 상의함이 현명하다.

위와같은 조항이 없으면 차후 " Well Qualified Buyer "에게 팔 경우 note Holder 가 응해야 하기 때문에 Sale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업체 인수시 기존 note 를 떠 맡은 경우 (Assumability) note Holder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ssumption Fee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note 조건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 Financial Statement 와 Resume "을 잘 작성하여 Land Lord 와 note Holder 에게 제출함이 현명하다.

D. Leased equipment 유부와 Franchise 여부

장비 List 를 Escrow open 할때 꼭 Seller 와 Buyer 가 확인해서 제출하고 어느것이 Leased Equipment 인지

Rent 는 어떠한지 관리유지는 누구 책임인지 확인해야 한다.

장비 Lease 가 Option to purchase 인지 아니면 Straight Lease 인지 분명히 할 것이며 Lease 기간이 끝나면 보통 " Residual Value "라고 해서 임차 계약당시 구매할 수 있는 액수의 5% 내지 10% 정도를 맨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전히 장비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 Lease 기간이 끝나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지 않으면 장비를 제거해 가든지 아니면 재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펍 불리한 위치에 서게된다.

특히 바깥에 세운 (길쪽이나 지붕위에 위치함) Sign 이 Lease 된 경우가 흔하니 이점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Trade name (상호)이 Franchise 인지 그렇다면 Fee 는 얼마인지 구비자격과 Training 문제와 그 비용 그리고 Deposit 등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E. Equipment Condition

계약 체결시 " All the Equipment is to be in good working condition at Close of escrow "로 기재함이 통례인데 인수전에 Repair 해야 할 시설장비의 목록을 만들어 Seller 에게 고치도록 확인받아 둘 것이며 일단 인수 후는 호지 부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인수전에 고치도록 중용할 것이며 만약 지연이 되면 Payment 할 부분에서 Buyer 가 고치고 해당금액을 공제한다고 약정할 필요가 있다.

F. Business Record 점검

보통 Sales Tax copy (Monthly or Quarterly)나 Income Tax 중 Schedule "C" 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만족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Seller 에게 통보하되 현장에서 Income 을 일정기간안에 확인하여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해야 한다.

G. 각종 License 신청

City Hall 에서 Business License 를, Health Department 에서 Health License 를 (식당업 종사경우), Federal I.D.No, 및 Department of Revenue 의 Account no. Trade name File, 등도 잊지 말아야

한다.

H. Insurance (보험) 승계 문제

기존 Liability Insurance Policy 를 잘 검토하여 그대로 떠 맡는것이 상례인데 더 추가할 것이 있는지 Agent 를 불러 상담하고 새 주인 이름으로 Binder 를 Issue 받아야 한다.

새로 사업을 인수하는 날 부터 보험이 유효해야하므로 신경써서 조치할 것이며 필요하면 새로운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보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세철종합보험

Stock, Bond, IRA
33804 35Th Pl S.W. Federal way
(206) 838-8467, 952-2197

김종구 회계사무소 부동산

12055 15th Ave N.E.
Seattle WA.

(206) 367-0655

“생활인의 지혜”

정인호 박사
(한인봉사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마음속에 당하는 고통과 번민 또는 슬픔을 당할 때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불행하고 고통스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들의 생애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행한일,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번민들 때문에 우리의 생의 결과를 비참하게 맺는 일들을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히 보게되는것입니다.

나는 얼마전 가까운 친구와 그의 딱한 사정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가정의 신실한 가장으로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은 병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수년동안 병석에 눕게되었습니다. 그가 병으로 활동을 못하기때문에 부인이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해야하며 생활을 꾸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형편에 처해있는 그 친구는 자신의 비참함과 번민 때문에 생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일생을 병에 누어야만하나?” 적어도 나에게만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할것이 아닌가? 인생의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별의 슬픔 또는 죽음의 고통이 폭풍과 같이 우리의 생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빈부의 차이나 지식수준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수천년의 인류역사를 통하여 철인이나 종교인

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추구해왔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남겨놓은것이 없었습니다.

인간 “예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란 인간의 절규를 남겼습니다.

이와같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수 없고 숨을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로 남아있는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고통의 이유를 찾아내는 일보다 “어떻게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승리의 생활을 성취할수 있을 것인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것이 생활인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들의 생활에 직면하게될때 누구든지 문제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가질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인의 고백서에 “나는 교회문턱에 다시는 발을 들어놓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네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 해결을 받는다고 거짓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그것만 믿고 내아들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올것을 기도 해왔지만 내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누구든지 문제된 사실에 반항을 가질수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랜동안 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들을 자주 듣습니다. 적어도 착하고 신실한

나에게만은 이런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반항의 뜻을 가질 수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반항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됨이 더욱심하여 생애 적응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떤사람은 치유될수없는 고통의 문제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참고 인내하므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겉으로는 기쁨의 웃음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자신만 알고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번민의 연속이 그마음을 떠나지 않을것입니다. 입술을 깨물며 인내하는 마음의 태도가 직면하고있는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통과 슬픔이 우리생활에 스며들때 승리의 생활로 이끌어 주는것일까?

우리는 직면하게되는 슬픔과 고통들을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유용하는 마음에 태도를 가질때 슬픔을 변화시키며 고통을 평화의 마음으로 만들어낼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연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열을가하면 무용한 분비물로부터 순수한 철이나 금이 분리되어 지는것처럼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알기전까지는 다른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슬픔을 함께 나눌수가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동안 자신의 성숙은 물론 주위의 사

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될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시인 “TENNYSON”은 절망과 의구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불멸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의 얼굴은 보지 못하나,
신앙으로, 오직 신앙으로, 감지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포옹합니다.”

성서의 많은 부분을 저술한 “바울”은 구슬같은 기독교의 진수를 부자유스런 옥중에서 남겨놓았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된후에 비교할 수 없는 유명한 심포니를 작곡했습니다.

이와같이 인생이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새로운 통찰력으로 삶의 진리를 찾게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진리는 고통과 번민을 알기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용기와 희망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나 생활의 양상이 다른 사회속에 생활하면서 인생의 뜻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직면하게 되면 고통이 평화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생활인의 진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아직 고통과 슬픔따위는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허 신

(Charles S. Huh, CPA)

- 세 무 전 문
- 회 계 감 사
- 경 영 자 문

- Univ of Wa, Accounting BA
- Golden Gate Univ, MBA(Tax)

13751 Lake City Way NE
Seattle, Washington 9812S

(B) 367-6782
(R) 745-6977

자동차 엔진오일은 왜 필요한가

이 점 태
(Lee's 타이어)

대다수 사람들은 본넷< Hood >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기가 일쑤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원인으로 자동차가 멈춰서게 되는 수가 있으며 일단 서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정비공을 부르든가 아니면 정비공장으로 토잉을 해가야 하며 정비공은 Hood를 열고 곧 간단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던 자동차 주인은 저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 이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수리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안타까와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일터로, 학교로, 교회로, 샵센터로 어디든가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운반해 주는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굴러다니는지의 원리나 이론정도는 알고 있다면 곤란한 처지에서 차가 멈춰 서버렸을때 능률한 자세로 후드정도는 열고 무엇에 고장원인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손에 기름을 칠하면서 공구를 가지고 수리를 배울 정도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깊은 학술적인것은 피하고 각 부분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알고 있는 오일< 윤활유, Oil >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기관에 있어서 윤활유가 왜 필요로 하며 어떤 작용을 하고 있기에 3000 mile 마다 자주 교환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오일이 있는가? 내연기관은 고속회전을 하는고로 각 작동 및 회전부분에 대한 급유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기관에 급유를 하면 각 작동 및 회전부분에 침투되어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1) 모든 움직이는 부분의 마모를 최소로 줄인

다. 기관 각 부분에 완전 윤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인한 유막을 형성하여 작동부분의 표면 마찰을 방지한다.

2) 모든 움직이는 부분의 마찰을 적게하여 동력손실을 최소로 한다.

3) 각 기관 부분의 열을 흡수하여 냉각작용을 한다. 오일은 윤활부에 발생된 마찰열을 흡수하여 다른곳에서 방열하는데 이것을 냉각작용이라 한다.

만일 이렇게 열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윤활부가 국부적으로 고온이 되어 녹아 붙게 된다.

<엔진오일은 항상 요구하는 제 양을 보충해야 하며 양이 적으면 기관이 열을 받고 엔진이 빨리 노후하게 되고 동력손실을 가져오고 개스소모가 많아진다. 주정부에너지 디파트먼트에서 변화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의 오일양을 하루 점점한 결과 한 쿼터 적은 자동차가 75%나 된다고 경고했다 한다.>

4) 베어링과 기타 부분 간격에 충격을 흡수하여 기관에서 발생하는 구음을 적게하고 또한 기관수명을 연장시킨다.

5)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간의 밀폐를 양호하게 한다. 실린더 윤활에서는 고압 개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피스톤 링을 돕는다. 이것을 밀봉작용이라고 하며 윤활유의 중요한 성질의 하나와 점도지수와, 점도, 유막형성력등이 관계된다.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간의 밀봉이 잘되지 아니하면 카부레타를 통해서 들어온 고압개스가

피스톤 압축 행정시에 실린더 벽을 타고 크랭크 케이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엔진오일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엔진오일이 흰색으로 변하거나 개스냄새가 섞여 있으면 밀봉작용이 잘안된다고 볼 수 있다.>

그외에 마멸된 금속분말과 불순물을 흡수하고 세척하여 내는 세척작용과 윤활면에 수분이 작용하면 녹이 쏘고 부식이 일어나는데 이런것을 제거하는 방청작용도 한다.

이상은 주로 기관 내부의 급유이고 다섯가지 기본작용을 수행하는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A, 크랭크 샤프트 베어링 B, 크랭크 각 마찰부 C, 실린더 벽 D, 피스톤 핀 E, 캄샤프트 베어링과 캄 F, 타펠트와 Rocker Arm G, 발부장치 각 부분이다.

이상 어느 한부분이 윤활이 부족하면 구음이 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윤활유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오일의 성질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 급유로서 만족한 성질은

1) 비중이 적당할 것

이 성질은 오일의 농도나 중량을 비중계로 측정하며 기관에 적당한 오일을 비중표에 의해서 택해야 하는데 외부기온에 대해서 관계가 있으므로 시애틀 기온에서는 SAE 10~30 또는 SAE 10~40가 적합하다고 본다.

2) 인화점< Flash point > 및 발화점< Fire point >이 높아야 한다.

인화점은 불꽃이 오일의 표면을 횡단 통과할 때 오일에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고 인화점에 도달한 후 더욱 가열할 때 계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하온도를 발화점이라 한다.

3) 점도< VISCOSITY > 및 온도 관계가 양호할 것.

이 점도는 Oi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질의 하나이며 윤활유 등급을 정할 때 점도를 널리 사용한다.

또한 우리가 Engine Oil을 사면 SAE 10 W~40 또는 SAE 10 W~30 라는 표시를 보고 사는데 이 SAE는 무슨 약자인가 하면 S.A.E. < Society of Automobile Engineering >의 약자이며 W는 WINTER의 약자이다. 그래서

SAE NO가 적을수록 희박하며 GEAR OIL은 SAE 90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윤활유는 기관 자체에서 소모되는데 기관이 윤활유를 소비하는 원인은 4 종류의 경우가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를 운전후는 필히 유면을 점검하고 보충을 해야 한다.

1) 기관연소실내에서의 오일이 연소되고
2) 기관 열로 인한 고온도로 증발하여 외부로 방출되고
3) 크랭크 케이스 혹은 크랭크 샤프트 오일 밀폐부로부터 소멸되고
4) 오일자체가 용해되어서 소비된다.

그러면 오일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각 부분에 공급하여 윤활작용을 하는가 하면 급유법의 종류가 몇가지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압송식< FULL-PRESSURE Type >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기관 제일 밑부분 어딘가에 오일 펌프가 부착되어서 기관 가동시 오일펌프가 작용해서 오일팬에 저장되어 있는 오일을 주유가 요하는 부분에 공급한다. 크랭크 샤프트나 베어링과 캄샤프트나 베어링과 발부장치등에 대하여는 직접 유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피스톤 핀이나 실린더 벽 등에 대하여는 콘넥팅 로드에는 유관으로 압송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크랭크 케이스에 저장된 오일은 반드시 오일 필터를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걸러 낸 다음 각 부분에 공급하며 운전석에서 오일게이지를 통해서 오일펌프작용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기관이 낮은 작동상태에 있을 때에는 5~15 PSI 이고 가속회전시에는 30~60 PSI로 게이지에 나타나며 게이지 각이 없는 차는 오일부족경고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행중에 오일게이지에 압력이 없거나 오일워닝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면 즉시 정차해서 오일의 양을 점검하고 적으면 보충해야 한다.

만약에 오일의 양이 적으면 오일펌프가 충분한 양을 각 부분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관열이 많이 나고 엔진이 빨리 노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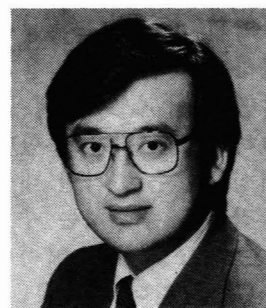
오일양은 항상 FULL마크에 있도록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양이 많으면 크랭크 케이스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기관회전에 방해하게 되고 어디론가 빨리 소모해 버려야 하기에 카본이 많이 누적되거나 어느 부분인가에 밖으로 흘러 나오게 된다.

보험에 관한 상식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보험은 왜 필요한가?

금번호에는 한인회 홍보부장이며 류종합보험의 실무자인 류창명 씨에게서 보험상식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류 창 명
(한인회 홍보부장)

A. 생명보험자의 실예

지금으로부터 1년전에 한 젊은 미망인이 저의 지역사회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활동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10살, 12살 되는 두딸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 젊은 미망인은 직업을 원했다면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직장을 가지지 않고 교회활동만을 하고 있었음이다.

자연히 모든 사람은 그분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역시 보험하는 사람으로 보험을 권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 생각하고 과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망설이다 보험이 꼭 필요한 이곳 사정을 설명하려고 그녀를 방문했다. 그때에 당도했을 때 자녀분들이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손히 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분께 몇 가지 질문을 했다.

Job 이 없으시면서도 사모님은 좋은 집에 사시고 자녀분들은 항상 좋은 옷을 입으시며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생활을 그렇게 영위해 나갈수 있는지 이야기좀 들려 달라고 했다.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하시기를 그분은 남편이 제조공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살며 부유한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어느날 젊은 생명보험을 파는 한사람이 전화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흥미

가 없다고 하는데도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다고 했다.

마침내 사모님의 남편이 보험회사의 manager에게 전화를 해 보험에 관심이 없으니 다시는 전화도 걸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manager가 답하기를 30분만이라도 저희에게 할애해 주시고도 저희 보험정책을 들어 보시고

만족치 않을 경우 저희는 다시는 신경쓰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manager는 권위와 용기를 가진 연장자로서 설득을 해 결국 방문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 두 보험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manager는 두 자녀분들도 그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합니다.

두 자녀분들이 도착한 후에 그가 첫째 따님에게 질문하기를 이렇게 좋은 집에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누가 이 모든것을 너희들 위해 마련했는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첫째 따님이 대답하길 “하나님”이라 답했습니다. manager는 답하기를 그것도 맞지만 모든것은 이곳에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하인으로 부터 오는 것이라 한다 하며 따님에게 그 하인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다. 따님은 거리낌 없이 그 하인은 아버지 일거라고 답했다. 다시 manager가 묻기를 그럼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풍요함을 주시던 하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 어떻게 할것인가를 물었다.

따님이 아버지에게 달려들면서 걱정하는 얼굴로 아무일도 없을 것을 아버지께 물었다.

“절대 우리가 모든것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죠”라고, manager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긴 적막후에 결국 그 미망인의 남편되시는 분이 생명보험을 사는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6개월후에, 남편은 공장에서 불의의 폭발사고로 절명을 했습니다. 미망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남편이 얼마나 큰 생명보험을 샀는지는 모르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두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과 그리고 집을 완불했으며, 내 남은 여생동안 필요한 충분한 생활비가 보장될 만큼 보험이 커버됐습니다.

그 manager에게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른다고 하며 저에게서 생명보험 또한 듣게 되었다.

B. 자동차 보험에 관한 상식

대부분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 보험비를 줄이며 바람직한 보험의 효과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먼저 자동차 보험을 줄일려면

① 공제액 (매사건 때마다 여러분이 부담하기로 동의한 액수)을 늘이는 방법

모든 보험회사들은 공제액을 충돌과 충돌외에 할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보험회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결국 회사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여러분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줄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손해가 생겼을때 공제액을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셔서 공제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충돌 Coverage를 들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 늘어감에 따라 그에 대한 가치가 감소되는데 사고시에는 대개의 회사에서 그 차의 시장가격 혹은 차를 고치는 가격을 비교하여 적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해동안 Claim을 안한 경우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이 Collision에 대해 상당한 액수가 될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agent와 상의하셔서 차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여 Collision Coverage를 들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③ 새차를 사기전에 차의 보험비를 의뢰해 보십시오. 차종에 따라 보험회사간에 다소 더 적은 보험비를 적용시키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차에 따라 많은 보험액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 차를 새 차로 대체할 때 더 많은 보험비용이 드는데 차선택에 따라 보험비의 증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 특별한 Rates & discounts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Discount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 차가 2대이상일때
- 2) 사고나 Ticket이 없을때
- 3) 차를 Carpool 하실때
- 4) 성적이 우수한 학생
- 5) 작은 차일 경우에
- 6) 비흡연자인 경우에
- 7) 연령 55세 이상이고 정년퇴직을 하셨을때
- 8) 보험인에게 항상 변동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a) 전보다 더 짧은 거리의 직장으로 운전하실때
 - b) 직장갈 때 버스이용하실 경우

이런 변동사항들은 여러분의 보험비를 적게 낼 수 있는 요인이 되는것입니다.

* 또 다른 일반적인 보험비 절약 방법으로는 안전운행 Safe Driv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1) 방어 운전으로 사고의 기회를 적게 접하시고
 - 2) 속력제한을 준수하시고 & 차간거리 유지하시고
 - 3) Seat belt 착용
 - 4) 차를 안전한 장소에 두시고 (항상 잠그시므로 도난과 파괴를 막는 것입니다)
- 준비가 되셨는지요?

사후에 당신 자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리문제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그자산 처분하는 것이 상례이며 그자신의 예상치 않은 많은 부분이 자산 수혜자에게로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단·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까. 고로 재산계획을 당신의 상태에 따라 맞게 잘 수립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신탁대리인 그리고 보험전문인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갱신된 재정 법적서류를 잘 보관하고 이 기록들을 Copy하여 친척들

25234 Pacific Hwy S. Kent, WA. 98032
 시애틀 (206) 941-0685

워싱턴주 한인세탁회

Seattle, WA 98105
 527-3227

University Rose Garden
 5220 University Way NE(대학가)



○ 각종꽃
 ○ 동·서양 꽃꽂이
 ○ 화환전공

(련, 장례식, 축하화환)

제일싸고, 제일예쁘고, 제일출근꽃
 한번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됩니다

한재 U 동양꽃꽂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미원 꽃꽂이 주인은 20여년간이나 미국내의 유명한 꽃꽂이 매니저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꽃 디자이너입니다.

살아야 할 의미

살의 전부의 의미가 가족 때문에 사는데 있을가. 인생의 의미를 진화시키면 따질수록 이 세상에선, 내가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불확실해지는 것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경지에 서 바로 사람은 종교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 온 것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좇아사는 것을 사명이라 말한다. 결국 기독교 진리에 의하면 이 세상에 무의미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 비록 그 인생이 가난하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불우이든간에 모두다 그 나름대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 그는 문벌로나, 학식으로는 지위로나 모든 면에서 당시 세대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세상적인 자량을 못잡고 살때 그는 공허했고 그래서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관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스테판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율법을 어기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선봉이 된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여 지극히 가난한 전도자로 평생을 고난중에 산다가 순교한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은 그 육신의 자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빌립보교회에 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가 확실히 보일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는 피로몽 일이 않아도, 그래도 방향이 설정된 인생길 이기에 지루하지는 않은 편이다. 어떤 학생이 박사학위를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 공부하는 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 을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목표 때문에 모든 것을 건두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지만 막상 박사학위를 얻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고, 직장에서 안정을 얻은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라기 보다 허전한 느낌이다. 마치 산을 올라갈 때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다는 목표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견디지만 막상 올라오고 보면 잠시 의 기쁨밖에 허전한 함이 맛보이지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결국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게 된다. 의미없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인생의 낭비요 그래서 의미없는 인생을 살때 그 지루한 공허를 어떤 사람은 슬취하는 것으로도 때워나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여행가는 오락으로도 때워 버린다. 그러나 생활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무엇때문에 사는가하는 인생의 의미를 묻게 된다.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가족때문에, 자식때문에, 남편때문에, 아내때문에 살아야하는가? 권승도 자기 새끼때문에 사는데 그래 우리 인

김상구 목사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종교칼럼〉

매년 이 기록들은 정확히 갱신되어야 하고 이 사본은 또한 원본을 가진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들은 미망인이나 재산집행인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고 원본은 가족변호사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자산 분배에 대한 정확한 지시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나, 동업자들에게 분배보관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서류로는 Trust 협의서, 생애보험증권, 출생신고서, Title & deeds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서류상에는 모든 친척과 사영동업자, 가족변호사, 회계사, 투자의뢰인, 보험전문가 등의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현주소가 명

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한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my labor)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량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 1:20-26)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행복을 소원하는 자신을 부정하고

고난중에 다시 더 살아야하리라 결단을 한다. 그리고 바울이 더 살아야할 그 생의 의미는 남에게 믿음과 기쁨을 더 심어주고 남에게 자랑거리를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결국 그렇게 위대한 바울의 생의 의미는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남에게 자신을 주는데서 발견이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남에게 내것을 주는 삶의 의미,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의 의미인 것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자랑거리가 생기기를 위해 고난스런 삶을 택한 바울의 생애를 볼때 내인생의 의미는 항상 남에게서 찾아져야함을 깨닫게 된다.

오늘 나는 무엇때문에 살아야하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 있는 한 나는 살아야할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교포 재정투자

신탁에 관한 정보



최한준
(한인회 청년부장)

지난호에 이어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치와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사항을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그럼 첫번째로 성장목적의 Mutual Fun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Fund의 특성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망이 좋은 산업부문에 속한 회사이거나 새로 이러한 부문에 등장한 신규회사 혹은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주식값이 실지 거래되어야 할 주식값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회사들의 주식에 역점을 두어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를 고르느냐는 이 Fund에 속해 있는 투자전문인들이 연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장위주의 Fund라고 하여 100% 전부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70~80% 이런 곳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회사들 보다는 이미 안전 계도에 올라서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나 채권 기타 다른 곳에 투자를 하므로 balance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장목적의 Fund라 해도 얼마나 Conservative(보수적)하나 아니면 얼마나 aggressive 하나에 따라 다 조금씩 특징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자 목적의 Fund는 대개의 경우 연방정부발행증권(government income securities)라 하여 정부에서 발행했거나 back-up이 되어 있는 곳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안전제일주의 투자자들의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투자한 액수에 대한 성장은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하지만 높은 이자를 매달 받는다는 면에서 특히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Fund를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경우도 높은 안전도와 높은 이자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Fund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장점은 이 매달 받는 이자에 대해 수표로 받을 수도 있고 재투자시킬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재투자를 시킬 경우 돈이 복리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세번째로 total return은 말 자체대로 이자와 성장을 각각 얼마씩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장위주와 이자목적 Fund의 중간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도도 어느 정도 피하면서 성장도 좀 원하는 경우에 택하게 되므로 역시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성장위주의 경우 파동이 크고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종류의 Fund보다 크다는 것이 최근 5~10년간 어떻게 증식해 왔나 하는 기록을 보면 실지 전문가들이 상황에 잘 대처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고객한테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utual Fund의 장점이라면 위에서 지적한 것

24시간 OPEN 하는 교회

씨애틀소망교회에서는 4.5 Acres의 대지위에 아담한 예배당과 교육시설과 친교실 그리고 각종 운동시설과 사택이 울안에 있는 자체교회를 마련하고 24시간 open하여 교민들의 심신의 안식과 영혼구원의 전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씨애틀소망교회

담임목사 : 성윤경 244-2752

12847 Military Road S Seattle, WA 98168

(Across from Riverton Hospital)

외에도 Retirement Plan (퇴직금마련제도)으로 할당시킨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부부가 다 일을 할 경우 \$ 4,000까지 해당하는 년도에 세금공제를 받으며 따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이 \$ 4,000이 대개의 Mutual Fund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CD의 경우처럼 만기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아무때나 Financial Consultant에게 얼마를 팔고 싶다는 전화 한 통화로 그 즉시 팔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익을 얼마나 보고 파느냐가 문제이지 팔리는 것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가격이 정해지며 Fund 자체가 무조건 사게되어 있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Mutual Fund의 경우도 수수료에 있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upfront fee라 하여 투자할 때 수수료를 내고 팔 때는 전혀 없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 %가 틀리는데 액수가 많아질 수록 퍼센트는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형태는 반대의 경우로 처음에는 전혀 없고 팔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간 Fund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퍼센트가 틀리는데 한 예로 갖고 있는지 1년안에 팔 때는 4%, 2년 - 3%, 3년 - 2%, 4년째에는 1%, 그리고 그 후에는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또 간혹 두가지 형태의 복합으로 처음에 아주 조금 fee를 내고 팔 때에도 갖고 있는 기간에 따라 일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Mutual Fund의 높은 수익성을 기대해 볼 때 이러한 fee는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있으며 결코 비싼 수수료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관계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세금은 이익이 난 것 중에서 분배해 주는 액수에 한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 10,000 투자한 사람이 1년후 30%의 이익을 보았다고 예를 들자면 \$ 3,000 이익을 보았지만 이 Fund 자체가 3% (\$ 300)만 분배를 하였다면 이 \$ 3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익 본 나머지 \$ 2,700은 Fund 자체가 처음 투자액수에 보태어 재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분된 \$ 300마저도 재투자를 시키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와같이 대개의 경우 (특히 성장

위주의 경우) 이익은 많이 보았어도 아주 일부만 분배해 주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아주 적게되고 재투자가 됨으로써 큰 이익을 장래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이익을 다 만끽하고 싶으면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때 이익 본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어찌하였건 이익을 봤기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익본 액수 중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니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것임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자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의 경우는 Municipal Bond (주 정부 혹은 시 발행)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는 Mutual Fund에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기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에 대해서 항상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소위 Trading Date (거래일)과 Settlement Date (결산일)이라 해서 order를 Financial Consultant에게 부탁한 날이 거래일이 되는 것이고 (New York 시각 오후 4시가 마감시간이므로 이곳 시각 오후 1시전 이라면)실지 투자한 돈이 Fund에 들어가는 것은 1주일 후 (결산일)라서 돈 지불도 1주일 전까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시장이 크고 미국 전 지역에서 돈이 모아지는 것이고 필자의 경우처럼 정식으로 연방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Financial Consultant의 경우 장소 제한을 받지 않고 미국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그 주 license신청만 하면) order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표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이러한 편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Mutual Fund는 독특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관리, 자동적 분산, 재투자,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아무때나 처분 가능, 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추어 골라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볼 때 많은 Fund들이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기 힘든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Mutual Fund는 어느 정도 장기성을 띠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았을 때 필요에 따라 어느 선에서 파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장기성을 띠어야 좋다는 얘기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처음에 fee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은 좀 봤어도 fee낸 것을 감안하면 큰 이익을 못 보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이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사업확장을 위해서나 기타 이유로 꼭 써야 될 돈의 경우는 이 Mutual Fund가 타당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다가 1년후 만기가 되면 또 1년 혹은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연장을 시킬 돈이라면 이런식으로 은행에 계속 쌓 이자로 맡기는 것 보다는 Mutual Fund가 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은행의 이자만 갖고는 그 돈이 결코 크게 불어날 확률이 전혀 없으며 액면은 이자때문에 증가하지만 실지 구매력 (Purchasing Power)은 inflation를 감안할 때 별로 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Mutual Fund가 누구에게나 다 적합하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장기성을 떨 수 있는 돈이라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한 투자 상품이라 사료됩니다.

일단 Mutual Fund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후에는 자기의 현 처지와 목표하는 바에 적합한 Fund를 고르는 문제가 중요하겠고 그렇기에 Financial Consultant와의 상담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무료법률상담안내

한인회에서는 5월 19일(화요일)부터 격주제로 4분의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께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봉사하실 변호사 이 동 훈 (한인회 법률고문)

Ron Brown (변 호 사)

심 영 식 (변 호 사)

Cordan Clinton (전 시애틀시장)

Schedule

5. 19(화) 이 동 훈	7. 14(화) 이 동 훈	9. 8 (화) 이 동 훈
6. 2 (화) Ron Brown	7. 28(화) Ron Brown	9. 22(화) Ron Brown
6. 16(화) 심 영 식	8. 11(화) 심 영 식	10. 6(화) 심 영 식
6. 30(화) Cordan Clinton	8. 25(화) Cordan Clinton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안내

즐거운 여행이 세관때문에 낭패돼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안내

누구나 처음 여행을 할때 목적지에 도착하면 세관통관절차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재미교포들이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면 먼저 기다리는것이 까다로운 세관원들이다. 다음은 입국과 세관절차에 관해 자세히 문답형식으로 설명했다.

입국절차

●공항에 도착하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우선 비행기안에서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 2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법무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입국사열대에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여권에 입국허가 스탬프를 받는것입니다.

입국사열대를 통과하면 그 다음이 세관검사장인데 여기에 있는 화물 콘베이어 테이블에서 출발지에서 탑승할때 실은 자기가방을 찾아 세관검사대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검사대가 여러개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하나?

세관검사대는 세관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내국인, 외국인, 단체관광객, 짐적은 여행자전용, 바이어 검사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해당되는 검사대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적은곳으로 가면됩니다.

●해외동포는 어느검사대에 해당하나?

해외동포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하는것은 여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분은 내국인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

고 외국여권을 가진분은 외국인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위한것에 불과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세관검사상에 차이를 두는것은 아닙니다.

통관범위

●어떤물건은 그냥 통과되고 어떤 물건은 세금을 내야하나?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것만 말씀드리면 여행중에 필요한 신변품(예 : 입던양복, 셔츠등 의류, 세면도구, 화장품등) 직업용품(순회공연자의 악기, 사진기자의 카메라등)등과 양주1병(외국인은 2병), 담배 10갑(외국인은 20갑), 향수 2온스 및 해외에서 취득한 10만원 미만의 물품(합계금액)은 면세통관이 되고 그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원이 외국에 출장갔다가 오는경우에는 자기가 출국할때 가져간 물건과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중 10만원까지는 면세통관이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국할때 가져간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시계, 카메라, 모피제품 등 고가품은 출국할때 미리 세관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동포가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체재하는 동안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과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면세통관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가품은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끝내고 출국할때에는 반드시 가져가도록 하기위하여 세관에서 별도로 기록을 하게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면세통관되는 물건이 다른것 같은데 그럴수가 있는가?

세관검사는 여행자의 여행목적, 체재

기간, 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여행자에 따라서 그냥 통관되는 물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여자가 남자시계를 가져오는 경우나 남자가 여자화장품을 한세트 가져오는 것은 인정할수 없는것이고, 또한 여자가 화장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사용중에 있는것은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새로 구입한것은 면세범위(10만원)에 들지 않는것은 과세하기 됩니다.

즉 똑같은 화장품을 가져오더라도 한 사람은 다른물건이 전혀 없이 10만원 미만의 화장품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선물이 10만원 이상 있고 화장품도 있다고 하면 전자는 면세통관이 되지만 후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요컨대 어떤물건이 면세통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은 그 물건 하나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아니고 여행자의 물건 전체를 보아서 결정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기간을 예를 들면 한달에 2~3번씩 해외여행을 하는사람은 처음 여행하는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해외의 한국인 선물센터에서 「이런것은 통관이 된다」는 식의 안내는 근거가 없는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친지가 선물로 준것도 세금을 내야하나?

관세는 물건자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므로 자기가 돈을주고 산것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것이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해외친지가 쓰던 물건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또한 결혼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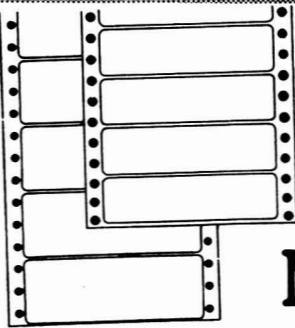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세는 물건의 가격 X 세율 =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물건의 가격은 자기가 구입한 가격이 아니고 세관에서 별도로 정해둔 가격(과세가격)을 말하므로 자기가 외국에서 구입한 가격과는 다른것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여행자가 다른물건이 없고 과세대상물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물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과세가격에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과세대상물품이 50만원이상일 때에는 물건에 따라서 모피제품(70%), 가정용 전기제품등(50%), 화장품등(40%)으로 구분되는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



컴퓨터

MAILING LABEL

본 회보를 우송하는데 사용한 computer mailing label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별 혹은 zip code 별로 분류하여 제공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P.O. Box 55564
Seattle, WA 98155
전화: (206) 775-1682

셋째, 고가품이거나 여행자가 간이세
울을 적용받지 아니할것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일반 무역회사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 관세를 부과하는것과 같은 방법으
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적
용하게 됩니다.

니다. 이 간이세율은 주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종합하여 간단하게 만든것입
니다만, 여기서 주의할것은 과세가격이
구입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자가 자
기가 구입한 금액에 이 세율을 곱하여 세
금을 계산하면 틀리게 됩니다.



STATE OF WASHINGTON
OFFICE OF THE GOVERNOR

OLYMPIA
98504-0413

BOOTH GARDNER
GOVERNOR

May 6, 1987

Mr. Kwang N. Yoon
President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

Dear Mr. Yoon:

Governor Gardner has asked me to thank you for your recent letter inviting him to attend the Korea Day Banquet scheduled for August 15, 1987.

I will be happy to note your invitation for consideration as we move closer to the date of the event. We will do our best to be considerate of your advance requirements for printing and other program deadlines.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206/753-6780.

Sincerely,

Glenda L. DeForest
Glenda L. DeForest
Administrative Assistant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개설 10주년 기념잔치

고국쇼무대 「어제와 오늘」再現

연예인초청 대향연



▲신중현그룹

시애틀센터에서 펼쳐
6월 22일 7시 30분



▲김정구



▲이금희

김정구·이금희·문주란·윤수일·최진희·김수희
한국록그룹창시자 「신중현과 엽전들」등 출연
폭소코미디의 대명사 뽀식이도 웃음판 벌여



▲문주란



▲김수희



▲윤수일



▲최진희

수익금 전액은 시애틀·타코마 양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서복미 최대의 실내공연장, 최고의 음향, 조명시설로 펼쳐는 환상적인 무대

입장료 : 한국일보 애독자 8불 일반인 15불



▲이용식



▲이성미

본 시애틀지사 개설 10주년을 기념하는 독자사는 연예인초청 대향연이 오는 6월22일(월) 오후 7시 30분 시애틀센터내 Arena(어리나)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Arena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서복미 최대규모의 실내공연장입니다. 또한 조명 음향등 제반 기술적인 처리는 Attractions Northwest 프로페셔널 프로듀서 회사가 장악,

명실공히 최고수준의 쇼를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애독자 8달러, 일반 15불에 매개처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쇼의 수익금은 전액 시애틀·타코마 양한인회의 회관건축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한인회소식

♣ 한인봉사회 활동

한인봉사회(정인호 박사)는 교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 오는 분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나섰다. 특히 가정문제로 인한 몇분들의 상담은 주요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한 통역도 도와주었다.

♣ 상록회 방문(웨더럴웨이 노인회)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상록회(박일수 회장)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한인회를 방문하여 윤광남 한인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Federal Way 지역의 노인후생복지문제와 영어교실 운영의 문제를 놓고 토의했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구체적인 토의를 위해 본 한인회 김현택 경로부장의 주관하에 모임을 가질것을 논의했다.

♣ 스노호에쉬노인회 방문

지난 2월 23일 스노호에쉬노인회장 박회장과 박회화이사장이 한인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광남회장과 이동훈 한인회 법률 고문은 노인회의 장족의 발전을 축하하며 주정부 및 County와의 협력문제등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서류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이일을 위해 이동훈법률고문은 2회에 걸쳐 스노호에쉬 카운티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구체적인 모든 문제를 도와주었다.

♣ 윤광남 한인회장 백악관에서 있는 미주총연 10주년 기념식 및 지도자 단합대회 참석

윤광남 한인회장은 지난 4월 10일-12일 까지 백악관에서 있는 미주 총연지도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국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한 이 모임에는 레이건 대통령 특별보좌관, 김경원 주미대사, 게리하트(전상의원), 로버트들 상원의원 정책고문, 티·갈렛 박사(부쉬부통령 흑인담당보좌관)등의 강연과 토의가 있었다.



♣ "Soprano" 이성숙 초청 우리가곡과 성가의 밤

일시 : 1987.5.24 7 PM
장소 : University Christian Church
4731 15th N.E.
(김동길 교수강연장소)

주최 : 시애틀기독교연합회
후원 :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 1987년도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 하계학교 입학 안내

해외에서 교포자녀들의 발전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보고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한 하계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1. 참가자격 : 중·고등학교 및 대학재학생으로 재외교포학생(외국적포함)

2. 교육기간 :

제 1 차 1987년 7월 1-14일

제 2 차 1987년 7월 24-8월 6일

3. 지원절차: 1987년 5.30 까지 영사관에 신청 접수할 것.

4. 문의처: 주 시애틀 총영사관
(206) 441-1011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uite 1125 United Airlines
Building
2033. Sixth Ave. Seattle.
WA. 98121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362-4500

♣ Income Tax Return 무료봉사

교민들의 인컴텍스 리턴 무료봉사를 위하여 교포들에게 무료상담과 성실로 봉사해 주신 공인회계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해 주신 분
김 용 철 공인회계사
이 석 주 "
허 신 "
손 기 남 "
이 규 영 계리사

♣ 회장단 교회방문

윤광남한인회장단은 지난 3.15일 형제교회와 에베렛 한인교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 교회들로 부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위탁 받았다. 앞으로 임기동안 각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 벨링햄지역 한국의 날 선포식

벨링햄에 있는 Western University 주최로 벨링햄지역에 한국의 날 선포식이 지난 2월 27일 있었다. 이날 모임에 한인회장과 섭외부장, 편집부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었다.

❁ 한인회 역대 이사_임원 초청간담회 및 신입 김홍수 총영사 부임 환영식

시애틀 한인회는 1987년 3월 27일 오후 7시 한일각에서 한인회 역대이사임원 초청간담회 및 김홍수신임 총영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60여명의 인사들이 초청되었고 윤광남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안에 한인회관 건립에 교포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4월 정기 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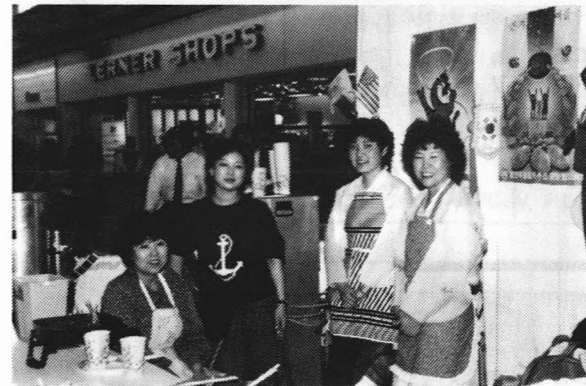
지난 4월 19일 4월 정기 임원회가 오리엔탈 BBQ에서 부부동반으로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 각부활동보고와 앞으로 가질 행사에 대해 전반적 토의를 했다. 특히 시애틀 민속박람회의 한인회봉사 문제와 교포체육 향상을 위한 각종체육대회 육성문제와 한국의 날 행사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토의했다.

❁ ETHNIC FESTIVAL (민속박람회)

지난 4월 24-26까지 North Gate 사평센터에서 Ethnic Heritage Council의 주최로 ETHNIC FESTIVAL이 있었다. 이 모임은 80여 국가가 참여하여 축제를 가지는데 한인회에서는 한국전래의 한국음식 불고기를 내놓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고유의 음식맛을 선보여 각광을 받았다. 이 모임에는 고국지 부녀부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부부동반하여 봉사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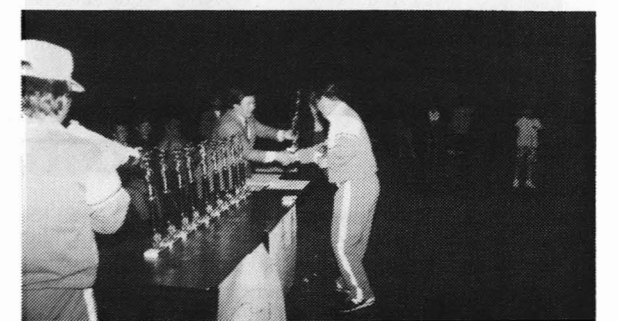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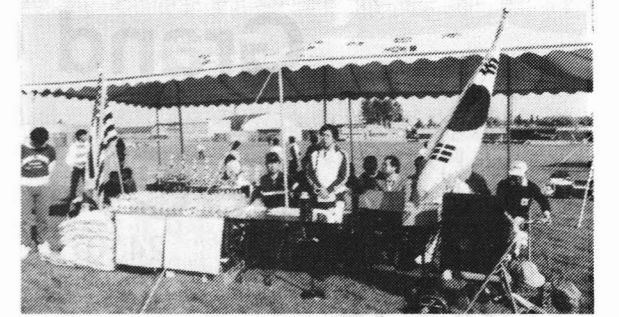
봉사해주신분

고국지 부녀 회장	이정섭 부 회장 부부
고봉식 이사장 부부	박창모 체육부장부부
윤홍남 총무 부부	최영우 교육부장
	류창명 홍보부장부부



❁ 제 5회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회장배 쟁탈

청장년 축구대회 및 대표선수선발전이 5월 9일 Fife High School에서 열렸다. 이날 선발된 대표선수는 제 4회 미주체전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이 축구대회를 주관하여 주신 정병국 축우회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후원에 주신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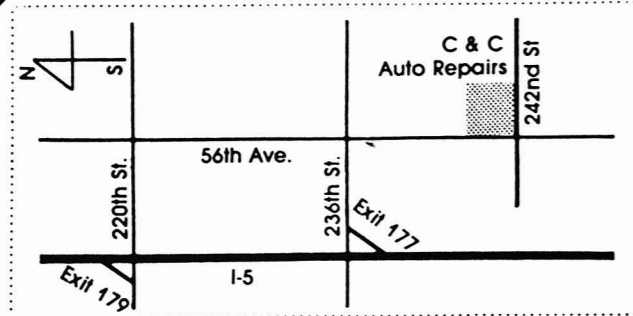


Grand Opening

C&C Auto Repair

24107 56th Ave. W.
Mountlake Terrace, WA
(206) 778-4695 (Business)
(206) 745-5206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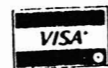
OPENING SPECIAL
Oil Change
\$15.00



교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위장소에 3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개업, 완전, 정확, 신속한 수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진 정재범 배상

For all Import & Domestic Cars

- Tune-ups
- Oil & Lube
- Transmission
- Brake, Muffler
- Electrical Work & Carburetor
- Air Conditioner
- Engine Rebuilt, Welding
- All Engine Repairs



Vacuum Cleaner, Grass Cutter Repairs

Open Monday — Saturday

8:00 a.m. to 6:00 p.m.

「독자투고」 4/20/87
Seattle Po - Intelligencer

미주에 살고있는 우리 한인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신문을 펴 본다. 그 이유는 항상 대두되는 한국에 대한 이곳 언론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도 조심스럽게 펴다가 한국거리 배경에 무슨 커다란 범죄를 짓고 쫓겨 무릎꿇고 줄지어 있고 그 위에 헬멧을 쓴 경찰인지 군인들인지 모를 사진이 비친다. 사진설명을 차츰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뒹다. 27년전 4.19 희생학생을 찾아간 어린 동생들이 이 모양으로 대접받는 모습이다. 마약범죄 이상의 살인자도 이땅에서 이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중진국이고 한국상품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한국사람도 이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고 있다. 이렇게 모질게도 자기 학대를 하고 한국의 지성인 학생들을 이토록 꾸겨 짓밟아서 어찌하겠다는건지 모르겠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을 대변할 사람들인데 이들의 배경이 이토록 처절하게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우리 젊은 이들이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경쟁을 할때 그 자세가 어찌될것인지 상상이나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명예스럽지 못한 군인들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A2 Seattle Post-Intelligencer, Monday, April 20, 1987 ★



Korean protesters rounded up

The Associated Press

Riot police force demonstrators to kneel before loading them onto buses to be taken away from the scene of a violent anti-government protest in Seoul, South Korea. About 1,500 students clashed with police yesterday outside the "April 19th Tomb," a memorial to about 200 students killed 27 years ago in an uprising that toppl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s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Witnesses said about 200 protesters were arrested yesterday and said several students were beaten by the police.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재무보고 한인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 명단

198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987년 4월 30일 현재)

●수 입

전년도 이월금	2,900.00
한인회비	1,305.00
찬 조 금	5,400.00
한인회관 건립찬조금	220.00
구제비수입	650.00
광고비수입	560.00
민속축전행사 불고기판매수입	1,560.00
이자수입	36.99
총 수 입	12,631.99

●지 출

사무실 임대료	1,200.00
사무원 수고비	1,751.00
사무용품 구입	449.00
사서함 사용료	93.00
전화료	181.56
광고비	600.00
한인회비간행 식자대	885.00
우송료	396.30
인쇄비	2,025.80
사진촬영비	253.39
축하화환 및 선물비	502.57
신문구독료	38.83
불우이웃구제비	300.00
회계감사비용(1986년도)	300.00
행사비	
임시 임원합동회의 다과비	63.78
김동길박사 초청강연회	100.00
민속축전 참가비	50.00
교계인사 간담회	79.41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	418.00
삼일절 기념식	82.34
한국의 밤 장소예약금	500.00
민속축전 준비금	500.00
상품 및 상패대금	368.10
은행수수료 및 수표주문	48.55
기타비용	30.00
총지출	\$9,719.24
은행잔고(4월 30일 현재)	\$2,912.75

한인회관

건축기금 잔고(4월 8일 현재)..... \$38,675.99

한인회비

박영희	50
김찬환	20
홍승주	20
헤식 Smith	50
김영남	20
한만섭	20
최영우	50
최인진	50
이동립	50
쏘니아김	100
심상희	20
유창명	50
고필균	20
정연발	20
최태원	20
김동협	20
한상국	20
황기택	20
성윤경	20
김성록	20
이창수	20
폴 신	100
김동호	20
김의진	50
김간난	40
크리스틴박	20
오준걸	20
이하영	20
심상헌	20
김석준	20
김현길	50
유준식	20
백용기	20
이성우	20
박설봉	20
김진숙	15
이종찬	50
샘 리	20
신석관	20
이존구	20

김정희	20
김영일	20
성동민	20
이정섭	20
윤홍남	20
김용철	20
김영진	20
이순권	20
이동훈	20
김현택	20
박창모	20
최한준	20
고국지	20
장광범	20

찬조금

한만섭	100
윤광남	3,000
김용관	100
박태호	100
최주찬	500
손기남	100
고봉식	1,000
김종구	200
김철준	100
최원웅	100
한국영사관	100

광고비

한국유단학	200
박 건 흥	150
한국의환은행	80
영스유리	100
선트로피	30

구제비

빌립보장로교회	200
에베렛한인교회	100
이효재	150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200

유진냉동 식당장비

EUGENE'S RESTAURANT APPLIANCE REFRIG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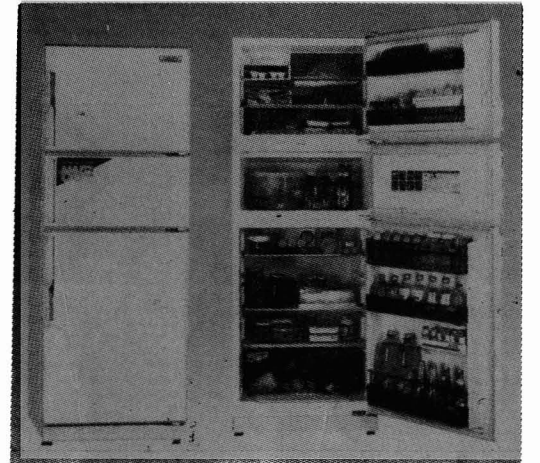
판매 · 시설 · 수리 · 디자인

STATE GENERAL CONTRACTOR BOND

LICENSE #EUGENRA 135C7

Office Warehouse TACOMA(206)272-3214 Seattle 839-0097

MASTER-BILT, TRUE 등 그로서리
와 식당에 관한 모든 장비 딜러 섭을
가지고 있는 공인대리점입니다.
직접 설계, 시공을 하며 전기 프러밍
Contractor와 Associate되어 있어 함
께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진냉동 대표 김 유 진

2224 MARINE VIEW DR. TACOMA WA. 98422

푸젯사운드 전기 프러밍

Puget Sound Electric Plumbing Inc.

시설 · 수리 · 무료견적

STATE ELECTRIC PLUMBING CONTRACTOR

BOND LICENSE #PUGETSE 161M4

Office (206) 627-1202 Seattle 839-0097

모든 문의사항을 환영하며 한국말통역관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푸젯사운드전기 대표 제임스 부라셀

2224 MARINE VIEW DR. TACOMA WA. 98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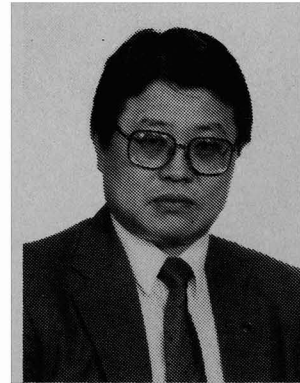
Live the good life.
THE EQUITABLE

장래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 좋은 보험은 재정안정의 열쇠입니다 -

- 노후대책 ○자녀교육 ○퇴직준비
- 가족보호계획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세워드립니다.

Bus : (206)475-5353(Tacoma)
(206)838-9218(Seattle)
(206)527-8094(Seattle)



박건홍

THE EQUITABLE Financial Services

Tacoma Mall Office Bldg. #425
P.O.Box 11309 Tacoma, WA 98411-0309

믿을수있는
세계굴지의

에퀴터블 보험

○통역 ○법률보조 ○서류작성
K.P. Transiation Services

K.P 번역원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문제를 도와드립니다

5233 15th Ave NE #201 Seattle, WA 98105

(206)522-7179